

바다, 유진가족과 신혼여행...S.E.S 뜨거운 우정
그룹 S.E.S(바다·유진·슈)의 우정이 화제다. 23일 결혼한 바다가 유진 가족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다. 바다의 소속사 측은 28일 "바다가 S.E.S 멤버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면 유진·기태영 부부, 이들의 딸 로희와 함께 떠났다"고 밝혔다. 슈는 일정상 함께 하지 못했다.



드라마 인연이 부부로...이상우·김소연 6월 웨딩

‘가화만사성’으로 만난 동갑내기 커플 양가부모님 권유로 1년도 안돼 결혼 김소연 “결혼준비, 이제부터 해야죠”

드라마로 만난 인연이 부부의 사랑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동갑내기 커플인 연기자 이상우(37)와 김소연이 6월 결혼한다.

두 사람은 2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양가 상견례를 갖고 구체적인 결혼 날짜 등 결혼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다만 6월까지 결혼 성수기여서 식당을 예약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장소 상황에 맞춰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양측은 평일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길일을 택해 식을 올리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공개 연애를 시작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결혼 적령기도 지났고, 양가에서도 “오래 연애하는 건 좋지 않으니 결혼하라”고 권유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호흡을 맞췄던 MBC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성’ 이후 연기 활동을 쉬고 있어 “결혼하기 좋을 때”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최근 친한 지인들에게 “결혼하기로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은 이날 오전 상견례에 가기 전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 감사하다.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다”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최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어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직 아무 것도 없다”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 후에도 연기 활동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며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우와 김소연은 ‘가화만사성’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후 실제로 사랑을 쌓으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상우는 2005년 드라마 ‘열여덟 스물아홉’으로 데뷔해 ‘조강지처 클럽’ ‘인생은 아름다워’ 등에 출연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소연은 1994년 청소년 드라마 ‘공룡선생’을 시작으로 스타덤에 올라 ‘이브의 모든 것’ ‘아이리스’ ‘검사 프린세스’ 등에 출연해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28일 양가 상견례를 가진 이상우(왼쪽)와 김소연. 지난해 MBC 드라마 ‘가화만사성’에 출연해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공개 연애 7개월 만에 “6월 결혼”을 알렸다. 사진제공 | MBC



사과없이 ‘간 보기’...신정환이 매를 버는 이유



김원경의 음담잡담

방송인 신정환이 가수 임재욱의 일상을 비추는 인터넷 예능프로그램에 ‘천조출연’ 한 사실이 27일 알려지면서 또 비난을 샀다. 2010년 해외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활동을 중단한 지 7년이 지났다. 8개월 감옥살이로 찢깁도 치웠다. 그해도 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다. 근황이 알려져도 비난을 받고, 복귀설이 나올 때면 더 큰 ‘옥’을 먹는다. 그럴 때마다 신정환은 “복귀 계획이 없다”고 ‘방어막’을 친다.

신정환의 말과 달리, 그는 연예계 복귀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옛 동료 방송인들과 방송 관계자들을 가끔 만나 이따금씩 복귀에 대한 생각을 은연중 내비치기도 한다. 27일 논란이 됐던 무대에 얼굴을 내민 것도 그런 일말의 바람으로 봐야 한다. 신정환의 직업은 방송인이다. 싱가포르에서 빙수가게를 운영한다고 알려졌지만, 그의 소유가 아니다. 신정환으로선 직업을 회복해야 하는 처지다.

신정환이 7년의 자숙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 ‘간’을 보는 모양새 때문이다.



신정환

문이다. 복귀를 타진했다가도 이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으면 “복귀 계획이 없다”고 물러서기를 반복해 공백만 길어지고 비난의 크기는 더욱 커져간다.

물론 도박 사실이 드러났을 때 ‘망기열 감염’이라는 어설픈 거짓말로 대중을 속이려 한 건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 행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매를 맞을 거면 제대로 맞아야 한다. 복귀 의지가 있다면 용기를 내고 매를 맞는 ‘통과의례’를 거쳐야 한다. 비난을 받아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비난을 달게 받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한다.

복귀에 대한 마음이 진짜 없다면 연예계에는 얼씬도 하지 말길 권한다. 또 다시 어설픈 방송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면 매의 강도만 더 세질 뿐이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gymmy@donga.com

서강준, ‘안투라지’로 일본 녹이기

현지 팬들 요청 따라 이달 초 재방영 6월 팬미팅 등 적극적 활동 모색도

연기자 서강준이 지난해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안투라지’로 일본에서 전전하고 있다.

서강준은 ‘안투라지’에 대한 현지의 높은 반응에 힘입어 25일 도쿄에서 팬미팅을 연 데 이어 6월3일 오사카 고베국제회관에서 무대를 연다.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던 팬들의 반응에 응답하기 위해 빠르게 일정을 결정했다. 이후에는 서강준이 속한 서프라이즈 그룹으로도 찾을 예정이다.

‘안투라지’는 1월 일본 넷브릭 재팬이 방송한 뒤 시청자 요청에 따라 이달 초 재편성됐다. 4월18일부터는 CS채널 위성극장에서 방영한다. 극중 스타 역할을 맡아 보여준 서강준의 화려함이 이전까지의 소박했던 모습과 달라 현지 팬들에게 보는 재미를 안기고 있다.

시청자 공략에 성공한 그는 공격적으로 팬들과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다. 25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담은 포토북 ‘더 퍼스



서강준

트 레터 프롬 서강준’을 발매했다. 현지 음반제작사 킹레코드사와 연내 서프라이즈 앨범을 발매하자는 제의를 받아 일정을 조율 중이며, 팬미팅을 투어로 확장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

서강준이 일본에서 차근차근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 사극에 대한 현지 고정층의 힘이 컸다. 2015년 드라마 ‘화정’을 올해 1월 일본 지상파 채널 TV도쿄가 방송해 폭넓은 시청자와 만날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 효과는 이번 도쿄 팬미팅으로 이어져 지난해보다 약 2배 늘어난 2000여석 규모로 꾸며졌다.

서강준 측 관계자는 “‘안투라지’ 속 서강준의 모습을 일본 팬들이 처음 접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한다”며 “아직 방문하지 않은 도시를 위주로 팬미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27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걸스데이 에브리데이 #5’를 발표한 걸스데이. 2010년 데뷔해 지금까지 한 번도 소속사를 바꾸지 않고 상호 신뢰 속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시스

또 2년 재계약, 걸스데이가 의미하는 것

소속사대표와 멤버들 깊은 신뢰 ‘마의 7년’ 넘어 9년장수 걸그룹

걸스데이가 소속사와 2년 재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요계에서도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걸스데이는 27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걸스데이 에브리데이 #5’ 쇼케이스에서 “소속사와 2019년까지 2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면서 “아직 보여드릴 게 많다”고 밝혔다. 2010년 데뷔한 걸스데이는 ‘마의 7년’을 넘어 활동 기간 9년의 ‘장수 걸그룹’을 일단 예약한 셈이다.

작년부터 투애니원, 포미닛, 원더걸스, 미쓰에이 등 유명 걸그룹이 해체되고 멤버 탈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걸스데이의 재계약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팀 인기가 오히려 멤버들의 개인화 성향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걸스데이도 헤리는 20편에 가까운 CF에 출연하고, 드라마와 영화 출연 요청이 줄을 잇는 차세대 걸그룹 스타다. 민아 역시 ‘미녀 공심이’

이후 연기자로 자리잡고 있다. 소진과 유라 역시 예능프로그램 단골 게스트로 주목받는다.

이들의 재계약은 소속사 대표에 대한 신뢰가 배경이 됐다. 민아와 헤리, 유라는 모두 고교 때부터 소속사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어려웠던 신인시절부터 부모처럼 따랐다. 멤버간 높은 친밀도 역시 팀을 존속시킬 수 있는 배경이다.

재계약이라는 화제 속에 걸스데이는 새 음반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15년 7월 2집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걸스데이는 긴 공백에도 28일 지니, 율래뮤직, 빅스뮤직 등 주요 차트에서 신곡 ‘아비 비 유어스’로 2위를 기록했다. 멜론에서도 발표 하루가 지나 서서히 순위가 상승하면서 6위까지 치솟았다. ‘아비 비 유어스’ 뮤직비디오는 하루도 안 돼 유튜브 조회수 250만 회를 돌파했다. 하루 1000만회씩 기록하는 대형 케이팝 가수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국내 활동 위주의 걸그룹으로는 높은 수치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공유, 대만 첫 팬미팅 입장권 10분만에 매진



공유

공유의 대만 첫 팬미팅 입장권이 10분 만에 매진됐다. 28일 소속사 매니지먼트스에 따르면 공유가 4월29일 대만 신주양 체육관에서 여는 ‘2017 공유 라이브 메이크 어 위시’의 입장권 5500장이 10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 입장권 판매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팬미팅 현지 주최사인 페도라 측은 “25일 오전 11시부터 대만 전역 세븐일레븐 티켓 구매기에서 판매를 진행해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석도 데뷔 후 첫 팬미팅을 국내에서 진행한다. 조정석은 5월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더 룸’이라는 이름으로 팬들과 만난다. 조정석은 이를 동안 각기 다른 내용으로 팬미팅을 구성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진솔한 모습을 공개한다.

서인국, 현역 입대 “나라 지키고 돌아오겠다”



서인국

가수 겸 연기자 서인국이 28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5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차대 배치된다. 서인국은 소속사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 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갈 것 같다.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더욱 능률하게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입대한 박병의 탐과 JYJ의 김준수는 29일 각각 경찰청 서울기동본부 교육훈련센터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의경교육센터에서 퇴소한다. 탐은 서울경찰청대로 배치됐고, 김준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단에서 복무한다.

가수 이정, 음주운전 사고하고 새 음반 발표

가수 이정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하고 새 음반 발표 소식을 전했다. 이정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만에 용기를 낸다.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 잘못된 판단으로 큰 실수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3월부터 새로운 소속사 컴투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게 됐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고 싶다. 2년 넘게 새 음반 준비를 하고 있는 요즘 신인 때만큼이나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라며 4월3일 자정에 신 공개하는 곡을 포함해 새 음반에 대해 공개했다.

4월 베이징 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상영 못할 듯

4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7회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상영되지 못할 전망이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인 ‘한한령’에 따른 조치이며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에 대한 중국 당국의 차단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영화계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영화가 여러 편 상영됐고, 이민호와 김우빈 등 한류스타들이 영화제에 참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도 하다. 앞서 하정우는 중국 여배우 장쯔이와 함께 영화에 출연키로 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음악 랭킹

자료:멜론 3월 20일~3월 26일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하이라이트
2	KNOCK KNOCK	TWICE
3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
4	부담이 돼 (Feat. 휘인)	정기
5	Fine	태연
6	밤편지	아이유
7	Marry Me	마크툽, 구윤희
8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9	Rookie	Red Velvet
10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